

역사 토론문

「“21세기 문명교류와 공존 패러다임”에 관하여」

쉬이화(徐义华) / 중국사회과학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역사는 인류 사회 공존의 과정입니다.

공존은 불변의 균형에 기초한 공존과 가변적 균형에 기초한 공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존의 인식은 사회관계의 구도만을 살피기보다 공존 및 교류의 주체들 간의 관계를 살피는 데 중점을 둡니다.

유럽 문명의 지적 전통은 직선적 시간 인식과 역사철학에 근거했지만 각 문명권의 역사 발전은 각기 다른 속도와 양상을 보였으며 시간 인식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각 문명 간에는 매우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가장 우수한 문명은 홀로 성립한 것이 아니라 타 문명권과의 유기적이고 복합적이며 지속적인 교류가 있었기에 성립이 가능했습니다.

역사의 공존과 교류를 결정하는 것은 관계 구도가 아니라 가변적 균형의 메커니즘입니다. 음양오행의 원리는 가변적 균형 이론으로서, 상생상극의 관계를 통해 순환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 체계 속에서 시간은 대를 이어 계속되는 반복을 통해 흘러가지만, 그 관계 구도와 내용은 질적으로 변화합니다. 역사는 직선적으로 앞을 향해 흐르는 것이 아니라 동적인 순환성을 보입니다. 음양오행설은 역사를 인식하는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역사상에는 여러 유형의 문명 공존 패러다임이 있었습니다. 이베리아의 접변 공존 유형, 시칠리아의 중첩 공존 유형, 예루살렘의 등배 공존 유형 등이 그 예입니다. 공존 패러다임을 제약하는 다양한 요인 중에는 네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문명 간의 관계 구도, 즉 서로 다른 문명권 간의 관계입니다. 이 요인에 관해 고민할 때는 탈유일성과 탈중심화에 주의해야 하며 각각의 독립적인 주체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둘째, 주체 간의 차이입니다. 같은 단위 내에서 각 주체는 관계동체음양(同體陰陽)의 관계이며 각 단위는 이체음양(異體陰陽)의 관계입니다. 셋째, 서로 다른 문명 간에는 상호 작용과 상보성 작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중요한 역사적 사건은 중요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존 패러다임으로 역사를 고찰할 때는 다음의 세 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잘 살펴야 합니다. 둘째, 공존 체계에서는 상호 간의 관계에 관한 규정과 행위를 가장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셋째, 우열 평가보다는 이체음양(異體陰陽)의 관계로 서로 다른 주체 간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 논문은 음양오행의 원리가 나타내는 동적인 균형과 오행생극(五行生克)의 의존관계를 통해 인류 역사의 발전은 각 주체가 공존하고 상호 작용하는 과정임을 설명했으며, 이러한 주체 간의 의존과 상호 작용을 역사와 문명교류를 고찰하는 패러다임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언어를 옮기는 과정에서 용어 사용과 문단 나눔 등의 원인으로 인해, 표현이 원문의 의미를 정확히 반영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 발표문의 상당 부분이 세계사에 관한 논의를 다루고 있는데, 전공 분야가 달라 논문을 완전히 소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